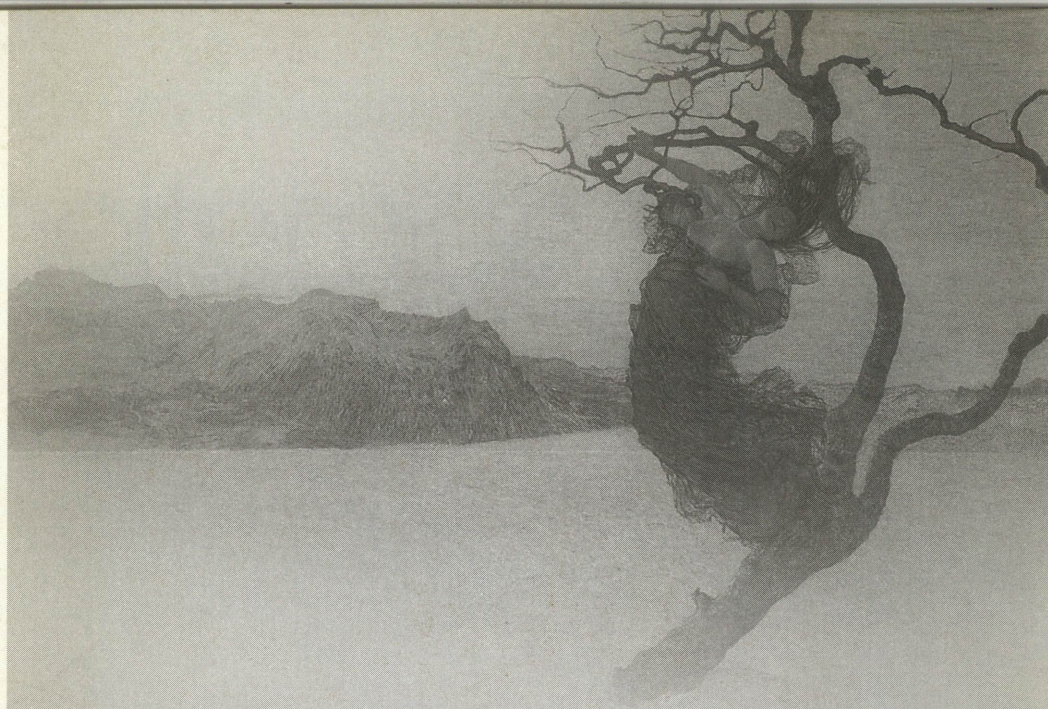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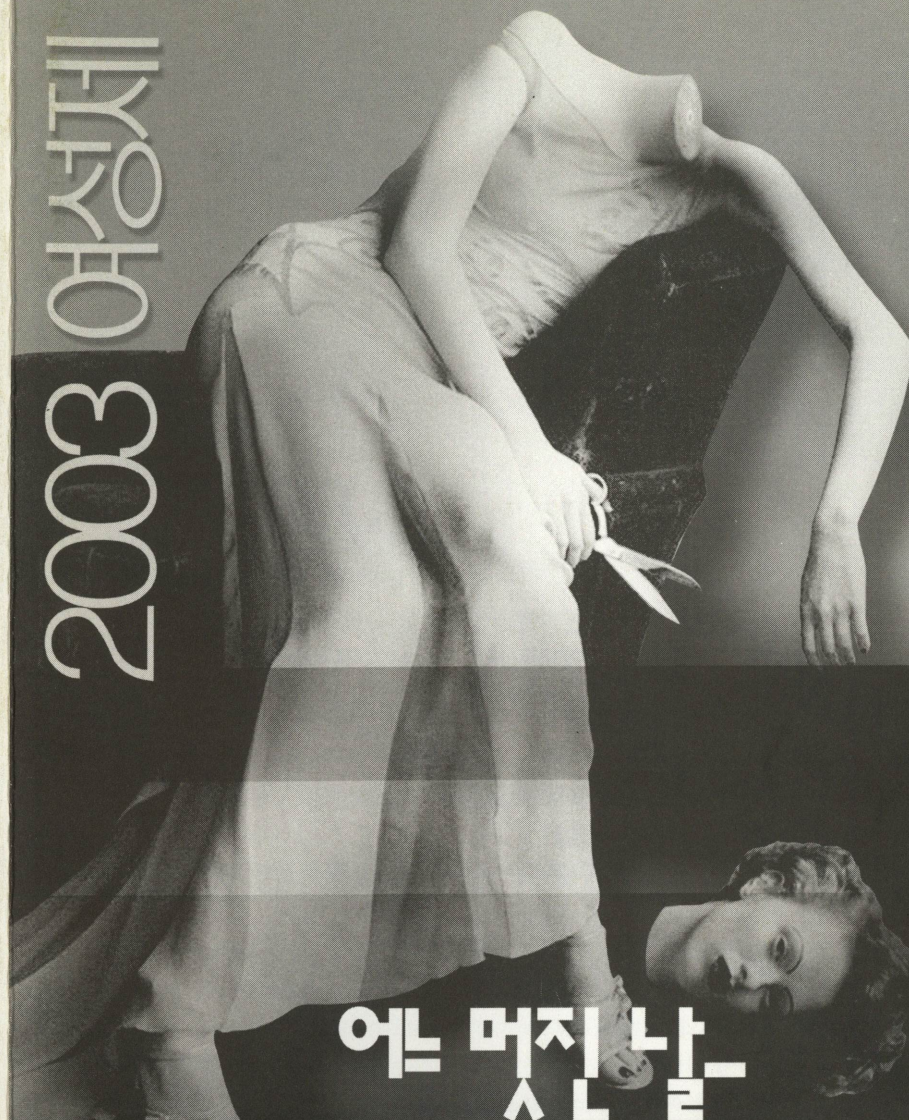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

여성제 기간동안 학교 곳곳에 학내 성폭력, 아내폭력, 성매매 문제에 관한 다양한 자보들이 전시됩니다.

여성학 도서, 여성주의 매체 전시회

학생회관 로비에서 다양한 여성학 도서들과 여성주의 매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성학 도서들은 각각의 여성학 주제별로 분류되어 관심 분야에 따라 전시됩니다.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에서 발생된 여성주의 매체들도 함께 전시됩니다. 성폭력, 여성노동, 성매매, 장애여성 등에 관한 자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2003 여성제



은 멋진 날-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

제 6회 여성제 기획단

일/破/만/波 제 15대 총여학생회

www.yonsei.ac.kr/~ysfem feminist@yonsei.ac.kr 02)2123-3645

어느 멋진 날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

쨍하도록 파란 하늘,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살,
천천히 기지개쳐는 게으른 구름.
평화롭게 흘러가는 하루.
멋진 날, 어느 멋진 날.

그러나,
평온으로 칠해진 일상의 겹질을 한꺼풀 벗기자마자 맞닥뜨리는
검푸른 상처와 조용한 비명들.
잊고 싶고 피하고 싶어서
차라리 부재하기를 소망하는 기억들.
그렇지만 눈감을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엄연히 존재하는, 그 아픈 기억들..

제 6회 여성제 '어느 멋진 날-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는 강연, 영화상영, 자보전, 전시회 등의 여러 프로그램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학내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여성에 대한 성별화된 폭력을 주제로 하여, 학내 성폭력, 아내 폭력, 성매매 등에 관한 고민을 풀어내고자합니다. 때로는 느끼기조차 힘들 만큼 폭력이 일상화되어있는 우리들의 '어느 멋진 날'에 균열을 내고 그 벌어진 틈 사이로 보이는 일그러진 상처를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의 힘을 북돋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려 합니다.

첫째 날 9월 29일(월)

여성제 개막식 + 퍼포먼스

9월 29일 월요일 12시, 학생회관 앞

소망나무 소망달기

'잊고 싶은 기억을 한데 모아서 날려버립니다'

여성학 도서 여성주의 매체 전시회

여성제 기간동안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족/민족/국가주의의 구조

강연자 정희진('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저자)

9월 29일 오후 6시, 위당관 205호

둘째 날 9월 30일(화)

'나' 부터 시작하는 성매매 안하기 서명운동

9월 30일 화요일 민주광장, 한소리회(www.han-sori.org)

성매매 없는 세상을 상상하다! '언니'들의 목소리

강연자 김성희(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새움터)

9월 30일 화요일 6시, 위당관 205호

여 성 제 프 로 그 램

셋째 날 10월 1일(수)

새움터 '언니'들과 함께하는 비즈만들기

10월 1일 오후 2시~5시, 학생회관 3층 여학생휴게실

9월 30일까지 참가 신청(여학생)을 받고,
사전 교양을 받은 사람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성별화된 폭력: '관습'과 '인권'의 경계에서

강연자 김현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10월 1일 수요일 오후 6시, 외솔관 110호

넷째 날 10월 2일(목)

'어느 멋진' 영화제

애니메이션 나의 이야기, 새인지 몰랐던 새, 종이인간 이야기, July & Betty,

Fly2 the dream, 참나무, aRe yOu theRe?, 상자속의 아이, 퍼스 포페, 바보 흥두 이야기
단편영화 Too happy to die, 이효종씨 가족의 저녁식사, 미친 김치, 저 멀리 여름 숲은, 탐폰 설명서

영화제는 10월 2일 목요일 6시 위당관 B09호에서 여성감독들의 애니메이션과 단편을 같이 상영하고,
전체 상영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입니다



성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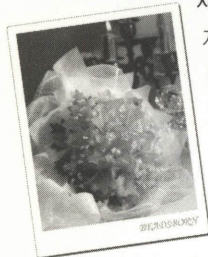
'언니'들의 목소리

- **강연자** 김성희(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새움터' 실무자)
- 9월 30일(화) 오후 6시. 위당관 205호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지난 삶과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탈성매매한 여성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들 속에서 '언니'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움터 '언니'들과 함께하는 비즈 공예

- **강연자** 새움터 직업재활 센터 '언니'들
- 10월 1일(수) 오후 2시~5시. 학생회관 3층 여학생휴게실



새움터는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입니다. 새움터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 지원 활동을 하면서, 탈성매매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공예는 행사 전에 미리 참가신청을 한 사람에 한하여 참가자격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 전에 성매매에 대한 사전 교양을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를 위해서 여학생만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참가 인원은 15명입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 같은 여성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즈공예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이러한 만남은 언제나 사회적 시선에 노출되어 움츠려든 채 살아가는 '언니'들이 잃어 버린 자신감과 희망을 회복하는데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참가한 사람들은 '언니'들과 직접 만든 비즈 액세서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신청** 총여학생회 (feminist@yonsei.ac.kr 2123-3645, 011-9949-7230)

※ 행사 시간은 '언니'들이 집이 있는 동두천으로 가는 시간을 고려해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동안으로 정해졌습니다.

2 0 0 3 여 성 제

아내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족/민족/국가주의의 구조

- **강연자** 정희진(『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저자, 성공회대 강사)
- 9월 29일(월) 오후 6시. 위당관 205호

한국사회에서 아내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아내폭력은 가족제도 안에서 폭력의 일상화를 가져오고, 어느 순간 사회적 정상성을 획득하며 용인되기도 합니다. 가족 내에서의 뿌리 깊은 성역할 구분은 여성을 부수적인 지위에 위치시킴으로써 끊임없이 폭력에 노출되게 합니다. 정희진 선생님의 이번 강연은 '아내폭력'의 심각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이해하고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강연 전에 제 5회 서울여성영화제 상영작인 <백일몽 A Woman's Daydream>을 상영합니다.

성별화된 폭력

성별화된 폭력 : 관습과 인권의 경계에서

- **강연자** 김현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10월 1일(수) 오후 6시. 외솔관 110호

여성에 대한 성별화된 폭력의 문제

애 니 메 이 션

ani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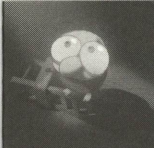
'어 느 멋 진' 영 화 제

movie

제 6회 여성제 '어느 멋진 날-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에서는 <'어느 멋진' 영화제>를 준비했습니다.
쉽게 접하기 힘든 여성 감독들의 애니메이션 영화와 단편 영화들을 상영합니다.



나의 이야기 My Story
유민지 | 2002 | 13분 12초



새인지 몰랐던 새 A Bird That Didn't Know It Was a Bird
송인옥 | 2002 | 5분 30초



종이인간 이야기 Paper Man
김수진 | 2000 | 4분 40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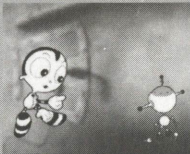
Jully & Betty
금교은 · 김효숙 · 노은미 · 류미영 · 박진숙 · 이희문 · 조주난 · 정윤경 | 2002 | 7분 23초



Fly2 the Dream
류경진 · 이미경 | 2002 | 4분 3초



참나무 An Oak story
김미경 | 2002 | 5분 45초



aRe yOu theRe?
이영현 | 2002 | 7분



상자 속의 아이 Child in Box
오진희 | 2002 | 6분 14초



퍼스 포페 False Poupee
린다 김 Linda KIM
| 2000 | 6분 47초



바보 흥두 이야기 Hong-Du,
The Foolish Boy
김미선 | 2000 | 5분

<여성단편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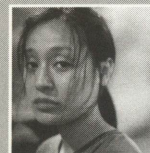
Too happy to die | 최진영 | 2002 | 13분 40초

Happy와 Die, 그 아이러니한 만남. 주인공 '나'는 정겹게 술을 마실 친구들과 자신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부모님, 운명적 연인, 그리고 예술에 둘러싸여진 자신의 삶을 둘러본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들에 고마워하고 그것들을 삶의 의미라 정의한다. 그러나 '나' 에겐 그런 Happy와 동시에 Die가 찾아온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지만 혼자 느끼며 사는 것이기도 하다.'



이효종씨 가족의 저녁식사 | 정희성 | 2003 | 14분

한 중년 여자가 장을 보고 있다. 더운 여름 그녀가 들고 있는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오래된 한옥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든다.



미친 김치 | 강지이 | 2003 | 19분

한소녀가 있다. 자신의 폭력에 못견뎌 집을 나간 엄마가 죽었다고 단정짓는 아버지는 소녀를 데리고 살인사건 현장에서 시신 확인을 하고, 사람을 찾는 전단지를 뿌리고, 술을 마시며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일상이다.



저 멀리 여름 숲은 | 오정연 | 2003 | 15분 40초

들뜬 마음으로 시작된 윤수의 독립은 처음에는 순조로와 보인다. 하지만 길을 잘못 찾고, 이사갈 집 대문은 잡혀있고, 계약한 방에는 누군가 살고 있고, 이삿짐 트럭기사는 빨리 짐을 풀라고 욕박지르고..... 상황은 점점 꼬이기만 한다. 그녀의 독립은 가능한 것인가? 여성의 독립과 그녀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실감나게 묘사한 작품.



탐폰 설명서 | 성새론 | 2001 | 13분 40초

'탐폰으로만 쓰라는 법이 있나?' 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작품으로 여성과 레즈비언의 성적 욕망에 대한 즐거운 상상, 또 고정관념에 대한 감독의 유쾌한 도전이다. '탐폰 콤미'라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영상으로 제작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작품은 크게 세가지로 탐폰의 사용 용도를 설명한다. 첫째가 생리대교체의 용도, 두 번째가 마스터베이션을 위한 도구, 세 번째가 레즈비언의 섹스도구로서의 사용법이다.